

투데이 칼럼

양보 스피치의 삶

인간의 생활은 아주 복잡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자가 개성이 뚜렷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이므로 자기주장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므로 양보와 배려도 존경받는 현상이다. 호감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목 중에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 또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일때도 현명한 양보가 최고다. 여기서 조선시대 공해군 때 가마고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시집가는 신부가 타고 있는 가마 행렬이 경남 하동의 한 고갯마루에 도착하였는데 고갯길은 가마 한 대가 겨우 지나 갈 수 있는 벼랑길이었다. 가마꾼들은 땀을 식히기 위해 좁은 벼랑길 앞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가마를 내려놓고 있는데 고개 건너편에서 다른 가마가 도착하였다. 그 쪽 가마도 신부의 가마였다. 좁은 벼랑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가마가 마주하게 되어 한 가마가 지나가고 다른 가마가 지나가야 하는 고갯길이었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위고 있던 가마꾼들이 소리쳤다. "이쪽은 남영 조식선생의 작계 후손 집 가마요 먼저 갈테니 잠시 비켜주세요." 그러나, 상대 가마꾼들이 "이쪽 가마는 퇴계 이황선생의 문하생 집 가마요. 그쪽이 먼저 비키시오!"라고 소리쳤다. 막다른 고갯길에서 두 집 가마꾼들이 가마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부를 태운 두 가마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맞수기문을 만난 것이다. 두 가마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 집안 사람들과 문중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와 싸움이 되었다. 결국 가마꾼들 싸움이 가문과 혈통, 학자들의 체면싸움이 되었다.

그 후 두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합의의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양쪽 신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양 가문의 대표들은 혼인을 위해 신랑집으로 가던 두 신부를 벼랑 아래 강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가마꾼들은 빈 가마를 메고 갔던 길을 되돌아간 한심스런 이야기다. 이 사연이 있던 뒤 고개의 이름이 가마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한 쪽이 조금만 비켜주었다면 아무 일 없이 비켜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한 두 걸음 비켜주지 않아 새 인생을 출발하려던 두 신부가 강물에 몸을 던져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마고개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애매한 상황일 때 꼭 필요한 것이 양보와 배려다. 내가 물러서면 나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다. 물러서 주는 것 보다 내가 겨우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양보가 없으면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다 죽을 수가 있다. 양보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양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죽을 때 그 체면도 같이 죽는 것이다. 체면도 권위도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현명한 판단을 잘하자. 살기 위해서, 일등 하기 위해 죽는 것보다 이등을 하면서라도 양보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일등 할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스피치를 통한 양보와 배려의 학습 잘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하자.

독자재언

교제폭력, 한 번의 용서가 더 큰 범죄로 발전한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감시(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와 정서적(언어적, 경제적) 학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이다. 이러한 관계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교제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행사를 수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6,689건으로 4년이 지난 2022년에는 65.9% 증가하여 70,790건을 기록하였다. 교제폭력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 또한 가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사법적 해결보다는 정서적, 인격적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교제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은 폭력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교제폭력에 대하여 수사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에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가해자들은 한 번이 아닌 다수의 교제폭력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한 번의 용서로 인해 가해자의 폭력행위는 점차 집요하고 치밀해지며 그 폭력의 강도도 점차 결집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마침내 피해자는 몰아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김대근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백악관 앞 다양한 목소리 내는 시위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 회의를 앞두고 7일 백악관 앞에서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고개 숙인 바이든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TV토론을 벌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거나 맥락과 무관한 발언을 하며 건강 문제와 인지력 저하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후보 교체론까지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별다른 캠페인비드에 모여 후보 사퇴 등의 거취를 논의하는 가족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도 등장하며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대안으로 떠오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바이든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 역시 전원이 트럼프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나설 경우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2%로 좁히며 바이든 대통령 보다 유리하다는 결과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후보로 나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p 이상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 후보 교체론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주자의 고삐를 끝까지 놓지 않을지도 관심사다. 아직까지는 완주를 고집하지만 향후 여론조사 결과의 향방에 따라 사퇴 압박 등의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떤 반전 카드를 내놓느냐가 대선 판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밀리는 여론조사, 그리고 그 격차가 계속 커지게 된다면 민주당이든지 지지층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감 몰아준 말단 공무원

최근 도청 홍보 계약과 관련한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3년 전 입사한 일기제 말단 공무원이 16건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이 팀장, 과장은 도장만 찍었다. 당사자가 피로 자르기 식이라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3년 2월 성인지 감수성 논란으로 불의를 빚어 도청과의 계약이 금지된 해당 업체는 징계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친동생 등의 명의를 빌린 회사 4개로 계약을 맺는 등 6건에 걸쳐 1억 1,000만 원어치 도청 홍보 사업을 따냈다. 전북 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서가 일감을 몰아주거나 광고비를 부풀린 것은 3년간 16건이라고 했다. 업체와 결탁해 일을 꾸며 특혜를 제공했다며 7급 일기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 반면, 5급 팀장과 4급 과장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비위 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팀장과 부서장의 주장에 따라,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단순 문책하는 수준이다. 임시직 공무원 한 명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결재권자인 팀장과 과장이 비위 행위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당 공무원이 맞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광고비 부풀리기로 업체에 부당 이익이 제공되기 시작한 건 2021년 8월부터다. 문제의 직원이 입사한지 한 달 만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당시 책임자 역시도 퇴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문책 대상에 들지 않았다. 말단 직원 하나만이 배임과 공무원징계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앞둔 셈이다. 감사위는 범죄 행위가 뚜렷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결국 진실 공방은 경찰 수사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